

100만분의 1m 최소형 레이저 세계 첫 개발

KAIST 박홍규 박사



한국과
학기술원
(KAIST)
물리학과
박 홍 규
(朴鴻圭·
28) 박사

는 2일 “다른 레이저를 이용해 구동되는 일반 레이저와 달리 전기로 구동되는 100만분의 1m 크기의 새로운 레이저를 2년여의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KAIST 물리학과 이용희 교수의 지도하에 이뤄진 이번 연구는 세계적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3일자에 발표됐다.

박 박사는 “이 레이저는 지금까지 구현된 가장 작은 레이저로 매우 작은 에너지로 구동할 수 있다”며 “레이저를 원하는 신호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고효율 초고속 광통신이나 광컴퓨터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사이언스기자

wolfkim@donga.com